

野, 대통령에 추해임안처리 거듭 촉구...“민심 맞선다면 심판”

이재명 “해임안 통과, 참사 책임 묻는 첫 단추” 박홍근 “이상민 문책하란 민심·유가족의 절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유가족 등 성난 민심의 산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참사에 대해) 오로지 형사 책임, 법적 책임만 따진다. 정치,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나”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켜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교수신문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과잉불개로 선정했다고 한다.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깊이 새기길 정부·여당에 권고드린다”고 보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를 대신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라

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놓고 ‘입장을 내놓을 가지도 없다’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 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건어한다면, 민심의 흑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상민 해임안 처리가 대선불복,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귀담측도 대선불복 쓰레기인가. 자기 눈 찌르기 그만하라”며 “이상민 해임안이 대선불복이라면 이상민이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되는 건가. 헌법 49조를 부정하는 반헌법세력, 총선 불복 세력 아닌가. 다수결에 의한 국회 표결을 부정할거면 총선 때 왜 한표라도 더 달라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총력전을 펼치나”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예산안도 팽개치고 시간끌기 해온 것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한달 내내 ‘양심의 가책’은 있으리라 생각하고 명예로운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한달여 지난 11월 30일에서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11일이 지나서야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이제 즉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 측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퇴 의사 표명을 지적하고 “국정조사는 의무이자 책임”, “답에 안 든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검박하는 데도 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불명예의 똥을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낮부럽고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무려 158명이 희생되고 부상자가 속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보다, 오직 대통령 핵심측근 장관 지키기만 중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가”라고 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퇴의사를 지금이라도 당사 거부될까. 국민의힘은 진상규명해달라, 책임처벌해달라는 유가족을 외면하며 이상민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이유가 고작 이상민 방탄인가. 정부·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 국회 파행, 이상민 방탄을 당장 멈추라”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만희,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한다. 이 사람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심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박지원 전 원장, 호남 민심탐방으로 ‘정치재개 몸풀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여수시 수산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호남 민심탐방이 지속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한 뒤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통해 대역 견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장

2박3일 일정 전남 동부권 방문, 지역민과 소통

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과 광양,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박 전 원장은 곡성 도림사를 방문하고 여수 광양항만공사 관계자와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시스템 문제를 논의했으며, 여수 수산시장, 순천 정원공원 등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했다.

이에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달 5일 목포에서 ‘지금 D라면’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지난 6월 퇴임 후 7월에는 해남·완도·진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조만간 전북지역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 퇴임 후 방송과 강연 등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데 이어 민주당 복당으로 본격적인 대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6년 만에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중앙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박 전 원장의 호남 민심 탐방이 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정치 재개를 위한 ‘몸풀기’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에 복당하면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박 전 원장은 대역 견제로 역할을 분담해 당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국회 밖에 있지만 대역 견제력이나 스피커 영향력은 현역 의원보다 앞서고 있다”며 “민주당의 향후 결정에는 호남 민심이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최근 행보는 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해임건의안 통과된 이상민 장관 ‘침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통과된 자신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로부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집무실로 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답변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 그대로 무력화된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